## 고려아연-영풍, 주주총회 표대결

# 현금배당안 가결·정관변경안 부결… 최윤범 회장 '판정승'

〈고려아연〉

**'최·장' 일가 경영권 공방 이목집중**
**국민연금, 고려아연측 제시안 지지**
**최윤범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의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75년 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표대결에서 고려아연이 승리를 거뒀다. 특히 고려아연 주주총회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에 손을 들어주면서 미래 신사업과 중장기 기업 가치 향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19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별관에서 개최된 제50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현장은 일반 주주와 대리인, 의결권 위임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주총을 앞두고 이른 시간임에도 참석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주총장 입구에는 경비 인력이 방문 목적을 물으며 철저한 검색을 진행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배당 규모와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됐지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은 만나지 못했다.

이날 고려아연 주총이 관심을 끈 것은 경영권을 놓고 고려아연 최씨 집안과 영풍 장씨 집안이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두 집안은 1949년부터 동업을 해오며 상호 지분을 보유해 왔지만 고려아연 최 회장이 2022년 한화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현재 고려아연 최 회장 일가와 영풍 장 고문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각각 33%, 32%다.

우호세력을 포함해도 양쪽의 지분이 팽팽하다보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약 8%)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총회의 핵심 쟁점은 배당과 정관변경 두가지였다.

우선 주총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배당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 62.74%가 찬성표를 던졌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 주당 5000원을 결산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최대주주인 영풍은 배당금이 너무 적다며 주당 1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주장해왔다. 고려아연은 회사 이익이 줄어든 만큼 배당금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배당금을 높일경우 주주환원율이 76%를 넘는 상황에서 96%까지 올라가 회사의 미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표준정관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고려아연 측 제시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53.02%를 기록했다. 하지만 특별결의 요건인 참석주주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정관변경안은 지분 32%를 보유한 영풍 측이 반대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 집안과 장 고문 집안 간의 표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은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이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도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됐다. 이로써 최회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와 ESG경영 전략이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을 달성한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분야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잘 활용함과 동시에 사회적 흐름에도 부응하는 신성장동력을 고민했고, ▲신재생 에너지 및 그린수소 에너지 ▲리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 ▲2차전지 소재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친환경 신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비전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국내외 산업 전반에 걸친 저성장 기조와 전기료, 원료비 상승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기존 제련사업과 신사업 간 시너지를 통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 주총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영풍의 주주총회도 열린다. 지난해 연결기준 1700억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최근 5년 중 4년간 적자가 이어진만큼 영풍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2월에 이어 최근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 문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주주환원율이 10% 수준에 그치는 등 부실한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비판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주총과 관련해 주주 환원과 주주 권익 훼손 등을 놓고 영풍과 장씨 일가, 고려아연과 최 씨 일가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 온만큼 영풍 주주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4조원에 육박하는 잉여금에도 불구하고 170억원대에 불과한 영풍의 배당금 규모를 놓고 주주들의 불만이 거센 가운데 고려아연 주총에서 주주가치 증대를 기치로 배당을 늘리라고 요구해온 영풍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9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 모습 /고려아연

#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양산

**초당 최대 1.18TB 데이터 처리**
**이달말부터 엔비디아에 제품 공급**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BM3E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5세대 제품 HBM3E를 세계 최초로 대규모 양산과 제품 공급을 시작한다. 고객사는 엔비디아다.

SK하이닉스는 초고성능 AI용 메모리 신제품인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 3월 말부터 제품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해 8월 HBM3E 개발을 알린 지 7개월 만에 이룬 성과"라며 "HBM3에 이어 현존 D램 최고 성능이 구현된 HBM3E 역시 가장 먼저 고객에 공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AI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다중 연결하는 식으로 반도체 패키지가 구성돼야 한다.

SK하이닉스는 HBM3E가 속도와 발열 제어 등 AI 메모리에 요구되는 모든 부문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 제품은 초당 최대 1.18TB(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이는 FHD(Full-HD)급 영화(5GB) 230편 분량이 넘는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하는 수준이다.

또 AI 메모리는 극도로 빠른 속도로 작동해야 하는 만큼 효과적인 발열 제어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 신제품에 어드밴스드(Advanced) MR-MUF 공정을 적용, 열 방출 성능을 이전 세대 대비 10% 향상시켰다.

류성수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당사는 세계 최초 HBM3E 양산을 통해 AI 메모리 업계를 선도하는 제품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성공적인 HBM 비즈니스 경험을 토대로 고객관계를 탄탄히 하면서 '토털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위상을 굳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기아, PBV 비즈니스 분야 등 신입사원 채용

〈목적기반 모빌리티〉

**29일 온라인 채용 설명회 개최**

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인재 확보에 나선다.

19일 기아에 따르면 4월 1일까지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이번 채용은 ▲글로벌사업관리 ▲구매 ▲경영지원 ▲경영지원(AutoLand화성) ▲상품 ▲생산(AutoLand화성, AutoLand광주) ▲정책개발 ▲제조솔루션(생산기술) ▲커뮤니케이션센터 ▲특수사업 ▲품질 ▲PBV비즈니스 등 총 12개 부문에서 19개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4년제 정규대학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학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 최종 합격 발표 및 입사는 6월 중 예정이며 ESG경영 실천 차원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은 우대해 선발할 예정이다.

기아는 오는 29일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8일부터 25일까지 참가 신청 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는다.

또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개 대학교를 찾아가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생산라인 풀가동

**12일만에 누적 판매 3000대 돌파**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직원들이 비스포크 AI 콤보를 제조하는 모습.

삼성전자의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출시 이후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제품 생산라인 풀가동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가 출시 3일 만에 판매량 1000대, 12일 만에 누적 3000대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국내 비스포크 AI 콤보 생산라인을 풀가동해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순조로운 배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 후 건조를 위해 세탁물을 옮길 필요 없이 세탁과 건조가 한 번에 가능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현대차그룹 전기차, 13개국 48개 부문 수상

**E-GMP 모델 각광… 우수성 입증**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E-GMP을 적용한 전기차의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를 비롯해 중국 비야디(BYD), 현대차그룹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6개월간 진행된 전 세계 자동차 시상식에서 전기차 모델이 13개국 48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현대차그룹 E-GMP가 적용된 전용 전기차 모델을 중심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

E-GMP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출시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전기차에 최적화된 차체 구조와 샤시, 고속화 모터, 고밀도 배터리셀 등을 적용해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의 상품성을 완성하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가 권위있는 다수의 시상식에서 연일 수상 소식을 전하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 경쟁력 있는 전동화 모델로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